

# Design and Choices: Focusing on the jun.playlist

## 디자인과 선택: jun.playlist를 중심으로

256

홍준기  
Hong Junki

1. 소개
2. jun.playlist 프로젝트
3. 소재 선택과 K-Pop 장르
4. 제작 과정
5. 디자인 측면에서 선택
6. 포스터 소개
7. 프로젝트 웹 아카이브
8. 음악과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9. 마무리

jun.playlist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K-Pop 음악 포스터 시리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은 디자이너의 크고 작은 선택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가장 먼저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계기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기획, 진행, 그 과정에서 마주한 다양한 제약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최종 결정은 왜, 어떻게 내렸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나아가 음악,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측면에서 고려한 것, 포스터를 제작 단계에서 고려한 내용들을 소개한다. 끝으로 아카이브 웹사이트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면서 전체 프로젝트를 정리하면서 개인적 관심사를 확장하여 독립된 하나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완성하면서 찾은 의미를 공유한다.

This writing focuses on Junki Hong's design processes and decisions while working on jun.playlist, a K-pop music poster series. The designer explains how he first started and planned the project, how he solved the various constraints encountered in the process of the project, and how he made design decisions. Furthermore, he introduces what he considered in terms of music, design, and typography while designing each poster. It ends by explaining his thoughts while organizing the project through the archive website and sharing meanings he found while planning and completing an independent project by expanding his personal interests.

### 1. 소개

나는 문자의 형태적 가능성을 실험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서울과 뉴욕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형태 변화와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관계를 실험을 확장하며 타입 디자인에 활용하거나 타이포그래피 작업을 한다. 특히, 추상적인 형태가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에 흥미를 느낀다. 기하도형의 추상성과 그것의 열린 해석 가능성에 재미를 느낀다.

jun.playlist는 이런 관심사를 반영한 개인 작업이다. 아주 개인적인 관심사에서 출발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디자인 선택은 내 스스로 내려야 했다. 결과물을 만들기까지 어떤 선택을 해야 했고, 그 선택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 2. jun.playlist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이었다.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힘들어도 하는 것(=음악 감상), 정말로 좋아하는 일(=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을 결합한 프로젝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음악과 다양한 스타일의 타입페이스를 활용해 음악을 표현하는 포스터를 제작하고 사람들과 공유하겠다는 가벼운 생각이었다. 새로운 타입페이스를 찾아보면서 리서치를 시작했다. 음악의 느낌을 어떤 타입페이스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고민하거나, 어떻게 해야 음악을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이 과정을 통해 디자인했고 그 첫 시리즈를 완성한 뒤에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작업을 알렸다. 스토리 기능을 활용해 포스터와 음악을 함께 소개했고 사람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프로모션 했다.

### 3. 소재 선택과 K-Pop 장르

학창 시절을 줄곧 한국에서 보냈다. 실제 가장 즐겨듣는 K-Pop을 작업 소재로 사용한 것은 가 너무나 당연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K-Pop 장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기도 했다. 국내 음악 산업이 발전하면서 K-Pop 장르 안에서도 다양한 음악이 등장했고 이제는 수준도 높아서 모두가 좋아할 만한 장르가 됐다. 그리고 가사를 제외한 음악 자체로 K-Pop과 Pop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 없을 만큼 K-Pop 가사에는 한국만의 문화와 정서가 있다. 이를 그래픽 디자이너의 관점으로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해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림 1] 국문 사용 사례, 선미 <가시나>, iKON <취향저격>, GOT7 <하드캐리>,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 BLACKPINK <뚜두뚜두>, APINK <덤더럼>(왼쪽부터 오른쪽, 위에서 아래)

#### 4. 제작 과정

포스터 디자인에 앞서 음악 선정은 원래 자주 듣는 음악,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모두 포함하려고 했다. 스케치 전에 뮤직비디오를 많이 봤고 영상 속 패션, 메이크업, 안무, 스토리 등을 중심으로 그래픽 모티프로 사용할만한 것에 관한 영감을 얻었다. 그 다음 가사를 찾아보면서 그룹의 세계관이나 콘셉트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음악의 추상적 인상을 담기 위해 노랫말 속에 반복되는 단어나 후렴구 혹은 제목과 가장 잘 어울리는 타입페이스를 한글, 영문 둘 중 더 적합한 형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선택했다. 다음 조금씩 조금씩 다른 버전의 레이아웃을 시도하며 음악과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고르기 위해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다.

#### 5. 디자인 측면에서 선택

##### 컬러(색)

흑백 포스터는 프로젝트를 하나로 묶기 위해 스스로 만든 제약사항이었다. 첫 번째 시리즈 초기 스케치를 할 때는 포스터 한 장 한 장 모두 다른 컬러를 사용했다. 색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각각의 음악을 개성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컬러 때문에 기존 앨범의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답습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를 탈피하고 싶었다. 또, 많은 색깔을 사용하는 것이 넓은 시야에서 프로젝트를 바라볼 때 오히려 음악 한 곡 한 곡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여러 포스터를 묶어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었을 때 포스터 감상을 방해하는 요소를 줄이기 위해 흑백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 국문과 영문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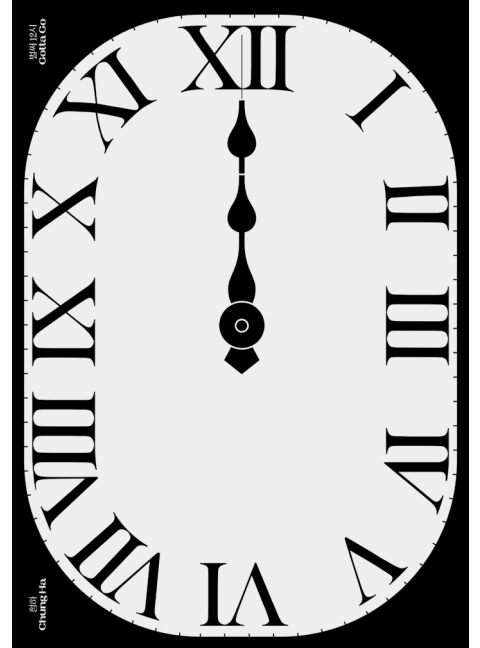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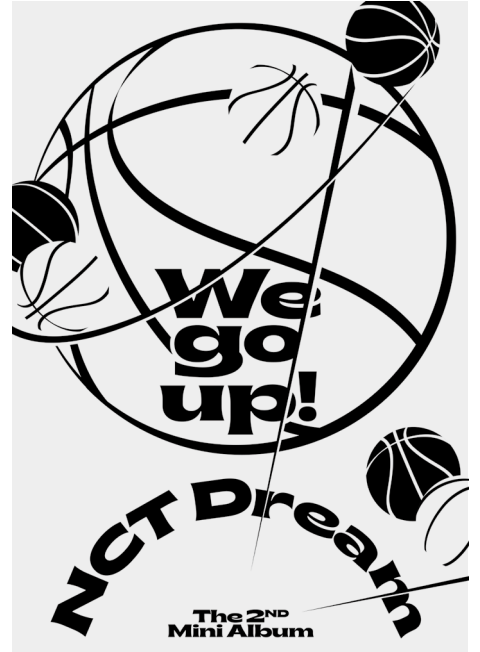
K-Pop을 소개하는 목적을 고려할 때 한글과 영문 사이에서 영문 활용을 좀 더 극대화하기로 했다. 케이팝은 시장에서의 성장에 발맞춰 외국인의 쉬운 접근을 위해 영어 사용을 늘리고 있다. 제목이나 후렴구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설정하고 영문 부제를 붙이는 것처럼 디자인에도 이를 모두 활용하기로 했고 한국어 제목이나 표현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한글을 사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 일러스트레이션 사용

타이포그래피 중심의 포스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과도한 일러스트레이션의 사용은 제한했다. 다만, 추상 형태 혹은 보는 이의 상상이 개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단순화된 일러스트레이션은 부분적으로 사용했다. 그 결과 타이포그래피에서 느껴지는 전반적인 분위기와 레이아웃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리듬감을 좀 더 두드러지게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림 2] 포스터, BLACKPINK <Lovesick Girls>



[그림 3] 일러스트레이션 사용 사례, Red Velvet <빨간맛 (Red Flavor)>, 청하 <별써 12시>, (G)I-DLE <Oh my god>, NCT DREAM <We Go Up> (왼쪽부터 오른쪽, 위에서 아래)

## 6. 포스터 소개

### BLACKPINK 〈Lovesick Girls〉

〈Konseric Luxury Serif〉 타입페이스를 처음 볼 때 인상이 음악을 처음 들을 때 느낌과 비슷했다. 그래서 과감한 타이포그래피만으로도 음악의 느낌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간결한 레이아웃으로 정리했다. 이후 지면을 가로지르는 스트라이프로 음악의 하이틴 분위기를 강조했다.

### 크러쉬 〈나빠〉

‘나빠’는 jun.playlist에서 첫 번째로 완성한 포스터이다. 평소 크러쉬의 귀엽고 재치 있는 가사를 좋아하는데 그 느낌을 포스터에 온전히 담고자 노력했다. 자모음을 분할해서 나열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 선미 〈보라빛 밤〉

〈North Carossela〉를 보자마자 ‘보라빛 밤’의 영문 표기로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반짝반짝 빛나는 도시의 야경이 느껴지도록 오목한 마름모 형태를 이용해 약간의 묘사를 더했다.

### TWICE 〈MORE & MORE〉

음악의 트로피컬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싶었다. 이를 위해 〈Ouroboros〉 타입페이스의 &를 M과 유사한 형태로 수정했고 글자의 오목하고 볼록한 부분을 과장해 흥미로운 형태를 완성했다. 〈Ohno Blazeface〉를 활용해 세부정보를 더했다.

### EXO 〈Obsession〉

이 음악은 콘셉트가 확실해서 이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나와 또 다른 내가 대립하는 구도를 표현하기 위해 두 가지 타입페이스 〈Helvetica〉와 〈Gideon〉을 섞어서 사용했다. 그리고 흑백으로 나눈 원을 통해 의미를 함축적으로 전달했다.

### 태연 〈What Do I Call You〉

〈Pearloop〉 타입페이스를 적용했을 때 알파벳 형태는 하나하나 아름다웠지만, 자간이나 행간 등 전체적인 짜임새가 부족했다. 그래서 자간을 좁히고 글자를 과감하게 맞붙이는 작업을 따로 진행했다. 대칭을 이루는 레이아웃을 통해서는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와 헤어질 때의 달라진 마음을 나타내고자 했다.



### **NCT 127 〈Cherry Bomb〉**

체리를 납작하면서도 입체적으로 그렸고, 무게가 무거운 타입을 사용해 폭탄처럼 묵직한 느낌을 주었다.

### **f(x) 〈NU 예삐오(NU A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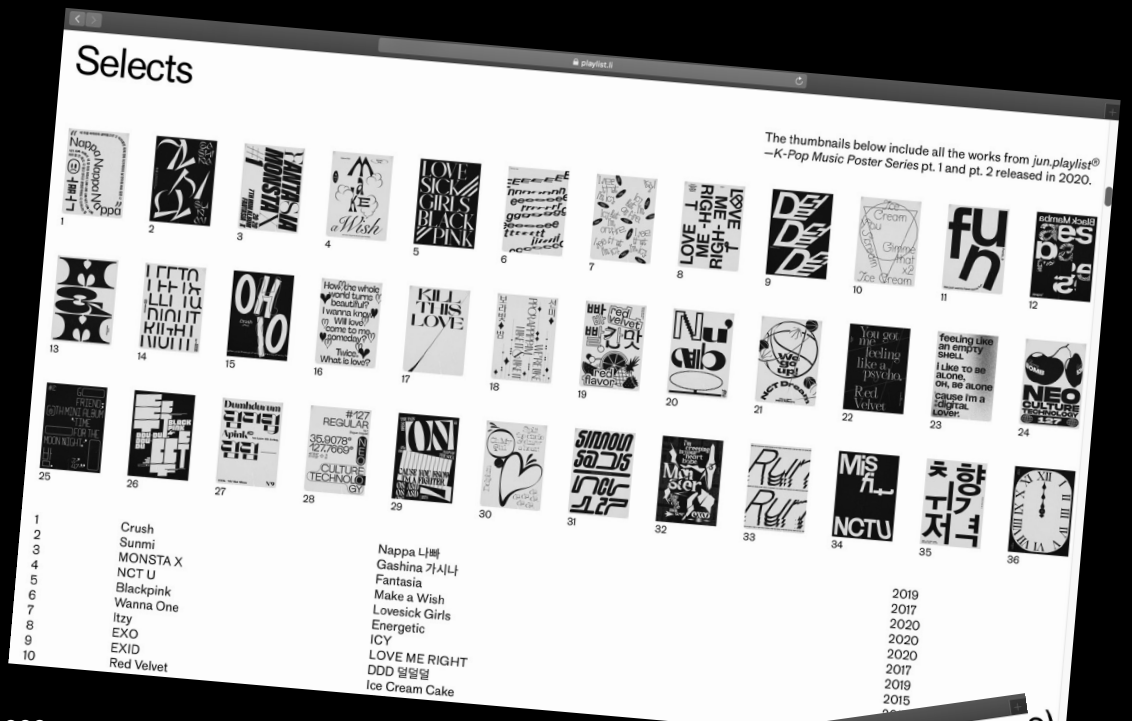
영문을 사용했지만, 한글인 예삐오가 함께 읽히도록 새로운 시도를 했다. 실험적인 에프엑스 노래만의 느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콘셉추얼 하게 작업한 결과물이다.

### **태연 〈What Do I Call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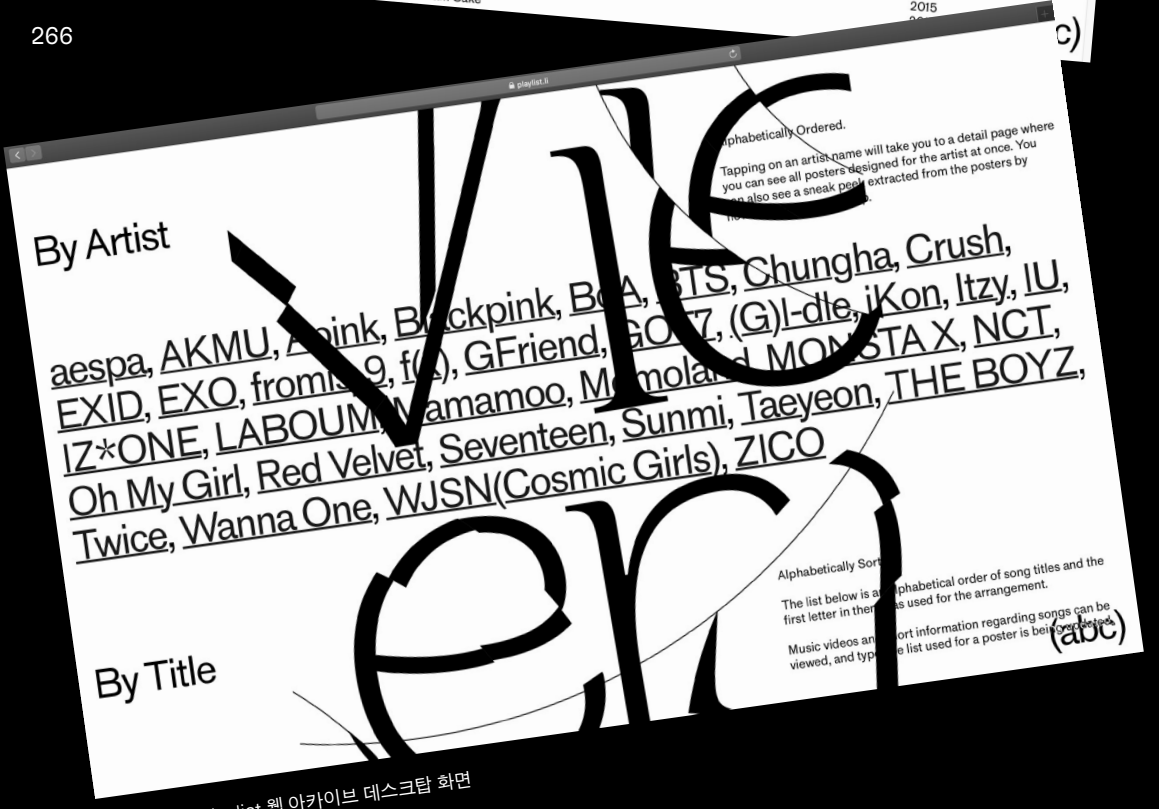
〈Pearloop〉 타입페이스를 적용했을 때 알파벳 형태는 하나하나 아름다웠지만, 자간이나 행간 등 전체적인 짜임새가 부족했다. 그래서 자간을 좁히고 글자를 과감하게 맞붙이는 작업을 따로 진행했다. 대칭을 이루는 레이아웃을 통해서 연애를 처음 시작했을 때와 헤어졌을 때의 달라진 마음을 나타내고자 했다.



[그림 4] 포스터, 크러쉬 <나빠>, BTS <ON>, NCT 127 <Cherry Bomb>, TWICE <MORE & MORE>, 선미 <보라빛 밤>, NCT 127 <영웅>, EXO <Obsession>, f(x) <NU 예뻐오(NU ABO)>, 태연 <What Do I Call You> (왼쪽부터 오른쪽, 위에서 아래)



266



[그림 5] Jun.playlist 웹 아카이브 데스크탑 화면



[그림 6] jun.playlist 웹 아카이브 모바일, 데스크탑 화면



### 7. 프로젝트 웹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두 번째 시리즈까지 공유한 후에 웹 아카이브 형태의 홈페이지를 떠올렸다. 웹페이지 자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사람들과 지속해서 공유하는 것을 생각했고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었다. 이를 위해 어떤 방식의 웹사이트 디자인이 적합할지 고민했다. 선택한 방식은 무한 스크롤을 이용해 모든 포스터를 보여주되, 인덱스 메뉴를 통해 가수별, 알파벳별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이었다. 또한 노래를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 볼 수 있도록 뮤직비디오를 삽입했고 마우스 호버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래픽의 다양성을 인터랙티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 8. 음악과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K-Pop 음악 속에서 각각의 노래는 다른 주제와 내용을 전달한다. 여기서 포스터 디자인은 크게 하나의 이미지로 추상적인 느낌을 표현한다. 포스터 디자인 속에서 타이포그래피는 느낌을 보다 정교하게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로 작동하는데, 가사를 단순히 문자로 옮겨 적는 것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포스터는 레이아웃이나 기본 그리드 시스템처럼 규칙적이고 구조적인 시스템에서 규칙성이 있지만, 디자이너로서 나는 시스템을 변형하고 변주하면서 시각적 즐거움을 만들고자 새로운 시도를 했다. 이것이 음악에서 말하는 리듬감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타이포그래피나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각적 리듬감은 음악적 리듬감과 연관이 있고 디자이너는 이것을 극대화할 방법을 선택하면서 보는 재미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음악과 디자인, 타이포그래피를 접목해 음악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수 있었다.

### 9. 마무리

jun.playlist는 개인적 관심사에서 출발하여 K-Pop을 소비하는 많은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감상하는 이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선택과 시도를 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의 주관적 표현에 머물지 않고, 많은 사람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K-Pop에 더 많은 관심이 갖도록 하는 것이 개인적 바람이다. 그동안 인스타그램과 웹페이지를 통해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노력했는데 이번 작업 공유가 jun.playlist 프로젝트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 프로젝트를 감상하는 모두에게 즐거운 경험하기를 바란다. 🎧